

“정부·지자체·민간 참여 ‘식량위기 대응기금’ 조성을”

KREI, 식량안보 대응 연구보고서 발간
주요 곡물 수입 차질 뎀 보리·콩 중요 ↑
총리 중심 ‘식량 위기 대응본부’ 제안도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식량위기 대응기금’ 조성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6일 ‘식량안보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 체계 구축 (2/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최근 식량안보 위기의 유형이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수출 제한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에 대응한 시스템을 공개했다.

식량 공급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 모형을 최적화 모형과 기반모형을 구축했다. 조달 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하고, 가장 심각한 위기 발생 시 최소한의 조달비용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칼로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증산 대비 전략을 모색했다.

연구 분석 결과, 주요 곡물의 수입이 장기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칼로리 자급률을 유지하려면 보리와 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식량 위기를 공급 부족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총 4단계(0-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대책을 검토했다.

정량적 판단 기준으로는 공급량이 평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2단계, 1인당 하루 공급 열량

이 1천850kcal 아래로 떨어지면 3단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놴다.

0단계에서는 생산기반과 공급망 강화, 1-2단계는 출하·판매 조정 및 수입 촉진 추진, 가장 심각한 3단계에서는 국민 필요 열량을 고려한 증산과 공정한 배분, 가격 안정 조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식량 위기의 심각도가 높아질 경우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1-2단계에서는 ‘식량 위기 대응위원회’, 3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식량 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평시 식량 비축시설·비축량 확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식량 위기 대응 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한편,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정기적인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생산자, 민간업체의 역할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승준호 부연구위원은 “식량안보는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평상시부터 단계별 위기 수준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국민의 식량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와 생산기반 유지, 전략적 비축 확대와 함께 실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겨울 먹거리 본격 출시 편의점 업계가 동절기 먹거리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CU매장에 따뜻한 즉석 식품들이 진열돼 있다. CU에 따르면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동절기 상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즉석 어묵, 핫아메리카노, 군고구마 등 겨울철 먹거리 매출이 늘었다. /연합뉴스

aT, 국내 농식품 기업 인도 시장 진출 지원

국제 식품박람회서 한국관 운영
2천42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국제 식품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국내 농식품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aT는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인도 뭄바이 뭄바이 전시센터에서 열린 ‘Anuga Select India 2025’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국내 농식품 기업 10개사의 수출 상담과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Anuga Select India’는 세계적인 식품박람회 ‘ANUGA’ 주최사인 쾰른메세가 주관하는 국

제 B2B 식품박람회로, 식품 제조·유통업체와 수입·유통 바이어 등이 참여해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행사다.

한국관은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온라인 상담과 현장 1대1 상담을 연계해 참가기업과 바이어의 관심 품목과 제품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현장에서 관심 바이어와 기업 간 구체적인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관에는 신선과일을 비롯해 부각·약과 등 스낵류와 주류, 소스류, 라면, 미숫가루 등 다양한 한국 농식품이 전시됐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수입·유통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경쟁력과 거래 조건 등을 소개하며 인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지 소비자들 K-푸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참가기업 제품을 활용한 ‘K-푸드 쿠킹쇼’를 통해 떡볶이와 비빔밥, 김밥, 김치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며 한국 식품의 활용법과 식문화화를 알렸다.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 참가기업들은 총 2천42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주류 분야에서는 한국산 소주에 대한 현지 바이어의 관심이 업무협약(MOU) 체결로 이어지며 인도 시장에서 소주의 새로운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기관 aT 수출식품이사는 “현지 유통망과 소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우리 농식품이 인도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삼성전선 실적 발표·컨퍼런스 콜...수급 공백 완화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9월30일~10월6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7.6% 상승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를 개인은 2조원 외국인은 3조원 순 매도하였고 해당 물량은 모두 기타법인(삼성, 하이닉스 자사주 매수)이 가져갔다. 코스닥은 개인이 1조원가량 순매도한 것을 기관이 대부분 받아갔다.

코스닥 기관 순매수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금융투자(증권사), 투신(펀드), 연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 주요 창구에서 순매수를 기록하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었다.

코스피는 미국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도 계속되는 주요국 장기채 금리 상승 부담에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태양광, 미용의료, 보안 등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7월 이후 처음으로 900pt를 돌파하며 저가권을 탈피하는 모습이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인 HLB의 개별 호재로 인한 급등과 미국과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증설 확대 소식이 코스닥 상위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 종목을 움직였다.

4분기가 시작되었다. 거친 조정으로 시작했던 3분기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현시점은 지수 방향이 전환될 연말을 대비하여 점진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할 시기이다.

투자심리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미국의 9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미연준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확률이 크게 낮아졌고 유가도 최근 하

락세로 전환하며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냈다. 이에 성장세가 강한 AI 섹터 위주로 자금이 유입되며 미국은 S&P500이 고가권이고 주요 빅테크(MT)들 또한 대부분 신고가를 앞두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최근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AI를 중심으로 한 M7과 스페이스X에 과거보다 더 집중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증시는 최근 코스닥과 반도체 소부장,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빅2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간 심각한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의 상승세는 국내 투심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금리 환경은 더 악화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기대감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수급상에 걱정거리는 있다. 10월 중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인데, 8월 21일 이후 기타법인인 40조 원 이상을 순 매수하며 증시를 받쳐준 만큼 수급 공백 우려가 있다. 다만 원화 가치가 견고하여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 매력도가 약해질 수 있고 현재 최고점인 미 국채 금리가 연말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수급 공백이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더불어 10월과 11월에는 주요 이벤트가 물려 있어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10월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보다는 2025년 메모리 쇼티지 지속 전망의 근거가 확인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추가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될 경우 자사주 매입 종료로 인한 수급 공백 우려도 완화될 것이다. 11월에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엔트로픽 IPO라는 AI 기업의 증시 상장이 대기 중에 있다. 오픈 AI와 AI 생두마차인 엔트로픽의 상장 밸류와 자금조달이 AI 밸류체인에 그대로 재투자 될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보이고 10월과 11월 주요 이벤트를 지니면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은 낮아질 것이다. 개인적으로 코스피의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광고문의 : 062)650-2099